

ULC 6

조경 시공의 최전선

#경관짓기 #현장의소리 #디자인빌드

URBAN LANDSCAPE CATALOG



유엘씨(ULC, Urban Landscape Catalog)는 도시 공간, 지역 사회, 조경 관련 산업의 종사자와 연계 학문의 연구자 그리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도시 경관의 기능, 특징, 디자인' 등 다양한 면모들을 관찰하고 재구성한 매거진입니다. 유엘씨프레스는 이론과 사례, 현상과 비평을 포함하는 글감을 모으고 일상과 발견, 인식과 경험에 관한 영상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출판합니다.

글·그림 공간서술

송동근

송이슬

안기수

최혜성

박영석

신명진

임한솔

디자인 이경

유엘씨 6호, 2023년 6월 1일

ulcpres.com

Interviews

디자인의 관철

안기수 / 공간시공 에이원 소장

설계자의 디자인을 오롯이 구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원에서 공원, 사방공사에서 구조물공사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영역을 시공한다. 현장에서 마주치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과 도면-현실의 간극을 우회하지 않고 직면해내는 충실함과 섬세함을 추구한다. 초림조경과 태상조경에서 경력을 쌓고 2016년 공간시공 에이원을 열었다. 서서울호수공원, 남해 깎다원, KT 디지코가든, NH가든쇼 시그니처가든 '물의 기억' 등을 시공했다.

박영석 안녕하세요. 천천히 그리고 길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기수 1977년생으로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의 도봉산 국립공원이 우리집 뒷동산이었죠. 지금과는 다르게 우리 어릴 적엔 노래방, PC방 등은 없었고 동네 오락실이 전부라, 친구들과 도봉산 아래 자락에서 수영하고 물고기 잡고 개구리 잡고 놀곤 했죠. <응답하라 1988>의 배경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유년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2~3km 남짓한 거리를 걸어서 다녔어요. 물론 가는 길에도 개울도 있고, 산도 있고... 멀쩡한 길을 놔두고 나는 친구들과 셋길에 있는 개울로 산으로 다니곤 했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는 친구들과 개울에서 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고, 산도 타고 놀다가 늦게 들어가서 엄마한테 혼도 나곤 했죠. 중학교 시절엔 그런 산이나 개울가에서 썬박질도 하고 친구들과 모여서 담배도 피고 놀곤 했는데... 한마디로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랬던 거 같습니다.

어찌보면 어릴 때부터 산에서 놀고 물에서 놀고, 한마디로 자연이 놀이터였다보니 지금 하는 일과 제가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서울 도심 현장에 있다가 지방 현장에 가는 길이 너무 좋아요. 푸른 걸 보면 막 차분해지는 느낌?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1학년 때 사고 한번 치고 중학교 선배가 나를 지도부로 끌어들었는데.. 물론 친구들이 다 노는 친구들이었지만 나는 학교에서만큼은 최대한 누르고 생활했던 거 같습니다. 고등학교 야자 시간 전에 친구들이랑 저녁먹고 담배 피러 뒷산에 자주 가곤 했죠. 3학년 때 한번은 담임선생님께 걸려서 호되게 혼났는데, 그때 제가 지도부장이여서 당장 혼나는 것보다 내일 일어날 일이 더 걱정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모교에 현장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다시 뵈 수 있었어요!

중학교 시절에 일요일 아침마다 공익 광고가 나오곤 했는데, 그때 하얀색 와이셔츠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머리엔 안전모를 쓰

고 옆구리엔 두꺼운 서류를 끼고 있던 사람이 자주 등장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그 시절 해외에서 파견 근무하시는 건설인분들과 관련된 공익광고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아버지께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나고 물은 적이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건축을 하시는 분, 한마디로 건축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마음 한 켠에 건축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축을 전공하기엔 내 실력이 형편없었죠.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공부는 저리가라 할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지금 같아선 다시 공부하라고 하면 잘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무튼 건축이란 학문을 포기하고 남자라면 토목이지라는 생각으로 눈을 돌렸지만 웬걸? 토목이나 건축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고민하고 있던 중에 조경은 어떻냐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조경이 뭔지 알아보니 나무 심는 거란 얘기를 들었고, 책상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지 않던 저는 건축이든 토목이든 현장에서 일하는 게 좋았던지라 그냥 '그래 나 조경한다' 마음 먹고 진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진로만 선택했을 뿐 공부는 징그럽게 하지 않았고, 결국엔 원주에 있는 상지영서대 조경과에 어렵게 들어갔어요. 학교에서도 형들과 잘 어울리고 해서 2학기 때는 과대표도 하게 되고, 우르르 모아서 놀러도 참 많이 다녔던 거 같습니다. 실습장이 학교 내에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때 형들이랑 도와서 돌도 나르고 목도란 것도 해보고, 전지한다고 했다가 나무를 그냥 작대기로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몸으로 뛰는 게 참 맞다는 생각을 그때 다시 하게 되고, 학과장님 눈에 띄어서 실습장 작업에는 항상 1번으로 불러나갔습니다. 그 뒤로 군대에 다녀와서 복학하고 졸업하고 편입준비하려다 안되서 결국엔 현장에 알바로 들어가게 된 이후 지금까지 오게 됐죠.

박영석 자기소개가 정말 재밌습니다. 이것만 해도 드라마 같아요. 조경 시공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안기수 체질상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적성에 참 잘 맞았던 거 같아요. 졸업 무렵 IMF 시기였고, 조경을 더 공부해보고 싶기도 한데 부모님이 밀어주신다고 하셔서 편입을 준비했었죠. 당시 서울시립대 편입 시험이 관련 과목만 본다고 해서 시립대를 목표로 준비했고, 나름 대학원생이랑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준비했었어요. 시험 당일, 공원법이 나오고 그에 준해서 쓰라는데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써봤던 거 같아요. 3명 뽑는데 55명 정도가 지원했고 저는 예비 5번이었어요.

기대도 안하고 독서실에서 멍 때리고 있는데 선배형에게서 전화가 한통 왔어요. “내가 다녔던 회사에서 현장기사 알바 채용한다는데 해볼래?” “어 할게.” 그렇게 현장에 가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3개월짜리 알바였는데 말이지...

박영석 첫 현장기사는 어떠셨나요?

안기수 그때는 그냥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제 현장 한번 나가보자 그런 생각으로 일단 간 거였어요. 그때가 2002년도 1월이었었는데 월드컵 관련 공사라가지고, 개최 전에 끝을 내야 되는 공사였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현장에 웬만한 조경하시는 분들도 경험 해보지 못할 일을 겪어요.

양평동에 당산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양평동 사거리에서 노들길 올라가는 그 라인까지 견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었는데, 그때 당산 초등학교 위에서 저희 토목 업체 포클레인이 철거를 하다가 지름 1,600mm짜리 상수도관 밸브를 건드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수가 터진 거지. 저는 마침 현장기사니까 아저씨들 참 사려고 동네 가게에서 사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202m 올라간다는 2002년 월드컵 기념분수인 줄 알았어요. 현장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포클레인 기사 양반이 수압을 잡는다고 포클레인 바가지에 흙을 이만큼 떠가지고 포갠는데 이게 수압이 워낙 세니까 돌이고 흙이고 그냥 날아

간 거예요. 더 위험해져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때 토목 소장님이 저 불러가지고 저기 앞에 차들이 들어 오니까 양평동 사거리에서 차 못 오게 막으라고 해서 쫓아가서 차 못 들어오게 막고... 난리가 난 거지 30분 지나니까 MBC, KBS, SBS 3개 방송사 다 오고... 결국에는 수도사업소에서 나와서 40분 만에 잠갔어요. 상황 정리를 하고 늦게 점심을 먹는 데 뉴스에 현장이 나오더라고요.

박영석 첫 현장인데 바로 뉴스에 뜨셨네요(웃음).

안기수 우리 사수랑 나랑 집에 못 가고 또 경위서 같은 것도 작성하고... 일주일 동안 집에 못갔어요. 결국에는 공사 기간이 계속 연장된 거예요. 월드컵은 한창 하고 있고 현장 사무실도 같이 보고 막 그랬거든요. 또 어떤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이 오토바이가 걸려가지고 날아가 다쳐서 일요일에 퇴근하다 말고 다시 돌아와서 안전 조치하고...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마지막 휘날레가 뒤편이면, 어느 정도 현장 정리가 되고 나무를 한창 심던 시기였어요. 다른 데서 흙을 받아가지고 나무를 막 심고 있었어. 그때 저는 현장 사무실에 앉아서 정산하고 서류 정리하고 있었는데 반장님 전화 와서 “안 기사, 나와 봐” 그러기에 내가 “바빠요” 그랬는데, 그때 “폭탄 나왔어” 그러는 거야. “무슨 폭탄?” 그러고 나갔어. 거짓말 안하고 60mm 곱폭탄 불발탄이 나와 흙에서. 수도방위사령부 폭발물 처리반 와가지고 수거해 가고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 그때 흙 정리한다고 장비랑 아저씨들 붙어서 곡괭이에 장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거 건드렸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갔던 현장에서 1600mm 짜리 수도관이 터져서 분수가 뿜어져 나오는 경험을 하고... 한참 막 고생도 많이 하다보니까 사수도 저를 좋게 평가해주셨고 우리 사장님도 저를 그냥 정직원 시켜버리더라고요. 원래 직원을 채용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박영석 첫 현장에서 그렇게 학을 뿔 정도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 이거 앞으로도 일이 장난 아니겠는데 하면서 그만둘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안 소장님을 시공의 매력으로 끌어당긴 계기가 됐을까요.

안기수 만약에 제가 그때 어느 정도 뭔가를 조금 아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였으면 바로 멘탈 나갔을 수도 있어... 나는 우리 사수를 도와서 어떻게든 이걸 수습해야 된다고 막 열심히 뛰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현장이라는 게 참 버라이어티 하구나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직원분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질 수는 없다. 너는 진짜 한 번 경험해볼까 말까 한 경험을 한 거다. 사람만 안 죽었을 뿐이지 다 본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 제가 다른 현장소장을 뛰면서 수도관 작은 거 터져가지고 물이 올라오고 하는데 그게 별스럽지 않더라고요. 너무 큰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냥 양수기 갖고 와서 수습하고, 전화해서 물 잠그고 그랬죠. 처음부터 멘탈에 스크래치가 크게 가면서 상처가 남은 게 저한테는 오히려 득이 됐던 것 같아요.

박영석 수도관 작은 거 터졌을 때는 주변분들한테 “괜찮아 이 정도는 뉴스에 안 나와”라며 다독이셨겠네요(웃음).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쓰시는 말씀 중에 ‘쉽지 않지만 어렵지도 않다’라는 멋진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 문장을 스스로 완성하기까지 특별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안기수 여태까지 닦친 일들이 많았는데 해결하지 못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힘든 것뿐이었지. 그러니까는 아무리 쉽지 않은 일도 하고 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좋아서 옛날부터 힘들 때 한 번씩 되새김질 하고 그랬거든요.

박영석 저도 술자리에서 많이 취하면 좋아하는 후배들한테는 “풀기 어려운 문제는 있어도 돌이켜 보면은 안 풀리는 문제는 없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네요.

안기수 사수가 그랬거든요. 아무리 현장이 힘들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고. 그런데 그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박영석 지금의 회사를 차리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안기수 성격상 뭔가 크게 고민하지 않는 스타일인 거 같아요. 회사를 다닐 때 접하게 된 정원공사와, 우리 팀동산바치를 결성하게 된 젊은건축가 프로젝트 ‘지붕감각’을 하면서 김지환, 최영준과 더 친해지고 그 동생들을 접해서 듣게 된 이야기가 뭔가 내 가슴을 요동치게 했어요.

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단 한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3개월 알바로 간 현장에서 그 회사에 채용되고... 첫 회사에서 6년 반 정도 있다가 선배 회사로 스카웃 됐어요. 선배 회사에서 8년 정도 있다가 첫 회사의 사수가 오픈한 회사로 옮겨서 1년 반 일한 뒤 지금의 에이원을 차리게 된 거죠.

사실 내 사수가 등을 떠민 거나 다름 없었어요. 마음 속에는 독립해서 오픈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눈앞에 현장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접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현장이 마무리 될 즈음 또 다른 공사를 수주해서 그 현장에 바로 투입되곤 했죠. 마지막 회사에서는 관내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수주했었어요. 풀 깎기 잔디깎기도 나름 재미는 있었는데, 나를 데리고 있기 힘들었는지 추석명절이 지나고 “내가 네 앞길을 막고 있는거 같다”라며 따로 가자고 하셨고 그렇게 독립하게 됐어요.

그리고 조경작업장 라디오의 김지환 소장이 회사 이름을 뭇로 지을까 고민하던 중에 “그냥 형이 독립을 했으니 안기수의 A와 독립의 의미로 1 어떠냐”라고 하길래 느낌이 와서 에이원(A1)이 만들어졌어요.

박영석 에이원에서 주로 다루는 조경 시공 영역은 무엇인가요?

안기수 눈에 보이는 모든 공간이 우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의뢰가 거의 안들어오지만 준공 조경부터 여러 작품까지 다 해요. 안기수의 베이스는 분명 조경이에요. 서울시 관내 관급공사를 17년 정도 했고 독립해서는 정원공사, 정원박람회 공사, 구조물공사 등 가리지 않고 하고 있어요.

박영석 그동안 수행하신 작업물의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안기수 아무래도 정원보다는 처음 출발했던 조경 공사를 더 많이 했죠. 공원이든, 아파트든, 잠실 2단지 외곽 가로수 공원부터 안에 중앙공원도 공사했었고...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방 공사. 아차산에 가면 제가 만들어 놓은 사방댐 기가 막힌 거 하나 있어요. 그것도 진짜 처음 해보는 공사였는데, 사람만 다닐 수 있고 장비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인도부터 산 사태를 예방하는 사방댐 공사까지... 옛날에 지게질도 많이 했었고, 발전기 막 들쳐 메고 올라가고, 시멘트 한 두 포씩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도 많이 했죠.

그런데 최근에 조경 쪽 분들이 조경이 먼저다 정원이 먼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어찌 됐건 조경이 약간 큰 틀이라고 하면 정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아기자기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정도지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 이런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박영석 가장 인상 깊거나 많이 배운 현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기수 나를 스스로 구분할 때 서서울 호수공원 공사하기 전과 후로 구분해요. 앞서 얘기했듯이 나는 관급공사만 전문으로 하는 시공사에 현장소장으로 재직했었어요. 당시에는 도면과 현황

이 맞지 않는 실정을 보고한 후 설계를 변경하는, 틀에 박혀 있는 재료와 시공법을 가지고 도면대로 시공하는 방식이 머릿속과 몸에 베어 있었죠.

그런데 서서울호수공원 시공은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내 몸과 머리를 깨운 프로젝트였죠. 그전에는 도면이 잘못되어 있으면 설계사 욕을 엄청 했어요. 절성토가 통채로 빠져 있는 현장이 있기도 했고, 도면에는 있는데 내역에는 없는 아이템이 수두룩 뽀뽀... 나에게 설계사는 그저 그리고 도면만 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서서울호수공원은 일주일에 한번씩 발주처, 감독처, 설계사, 시공사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의 목적은 그 작업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문제가 있는 상황들을 체크해서 어느 정도 대안까지 꾸리고, 도저히 답이 안보이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은 회의 때 다 풀어내고 이해했었어요. 특히 씨토포스 최신현 대표님의 현장에서 그리시는 스케치 한장으로 이해가 한방에 다 됐다. 철쭉류 4가지(산철, 백철, 자산홍, 영산홍)를 자연스럽게 혼식하라는 말씀은 정말 내 머리를 크게 얻어맞은 계기였어요. 철쭉들마다 개화시기가 틀리다 보니 혼식한 부분은 개화되어있는 시기가 오래 가는 거였죠.

예를 들어 몬드리안 정원의 마감 레벨 때문에 밤새도록 단면을 끊어보고 재료와 재료가 접하는 부분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작업 같은 게 그 시기에 나에겐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문제를 제기하면 답을 명쾌히 해주시기에 나는 문제점을 하나라도 찾아보기 위해 애를 쓰고 그러면서 나 스스로도 상당한 공부가 됐죠. 틀에 박혀 있는 상세가 아니라, 이게 되는 디테일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나 자신도 더 뜯어보게 되고, 뜯어보다보면 되는 디테일. 조금만 보완하면 가능한 디테일. 너무 재미가 있던 현장이었어요.

물론 공기를 한 달 이상 당기게 되어 현장에 비상이 걸려 거의 한 달을 철야 작업 하는 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경험도 역시 지금의 나를 있게 한거라 생각해요. “쉽지 않지만 어렵지

도 않다.”

박영석 최근에 상을 타거나 잘 만들어졌다고 소문난 작품의 크레딧에는 늘 안기수 또는 에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새 시공 분야에서 유명해진 것을 느끼시나요?(웃음)

안기수 모르겠어요. 저는 작년에 검단 현장 끝나고 나서 저희 에이원이 조금 유명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알음알음 조그맣게 설계사무소 하는 친구들이나 소장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는 종종 들었어요.
그런데 검단 현장 끝나고 나서 저희를 찾는다는 소식이 조금 더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저희는 잘 몰라요. 저희는 저희끼리 현장 다니고 그냥 재밌게 즐기고 하는 편이라 남들이 알아주고 하는 거는 잘 몰랐거든요.

박영석 소장님께서 하셨던 작품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인가요?

안기수 일단 서울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 조경상 대상을 받았던 KT 디지코가든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들면 찾아가는 데가 있어요. 서울 근교에는 서서울호수공원,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바람을 쐬고 싶다 하면 전남 영광에 있는 카페 보리. 여기는 홍광호 소장이 설계를 했고 저희가 시공을 했던 곳이기도요. 거기는 일단 풍경에서 먹여주는 곳이에요. 가보면 뭔가 힐링되는, 편안함이 있는데 저희가 공사했다는 것에 약간의 큰 자부심이 있어요.

박영석 앞서 세 군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영광 보리 카페 같은 경우에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였고, 서서울호수공원과 KT 디지코가든에서도 포인트 한 가지 정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기수 서서울호수공원이 저한테는 무척 뜻깊은 곳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공정회의를 했었는데, 제가 그전까지만 해도 설렁설렁 봤던 것들을 다르게 보게 되더라고요. 하다 못해 평면도상에 나와 있는 마감에 대한 것들, 파이널 레벨 값들을 다 뽑아서 단면을 끊어놔었어요. 그러니까 재료와 재료가 만나는 경계, 레벨이 바뀌는 부분이나 경계점들을 세심하게 체크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디자인을 바꾸려는 게 아니고, 그 디자인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런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배운 것도 많았고.

KT 디지코 가든은 그 설계 개념 자체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도시 안에 그런 숲을 만들어놓은 데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콘셉트 자체가 일단 무조건 볼 만해요. 근방에 광화문이든 어디든 다 건물 주변에 기본적인 조경만 해놔는데 KT 디지코 가든 같은 경우는 CA 조용준 소장이 의도했던 것처럼 인왕산의 도심을 연결해서 숲을 만든다는 컨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도심의 숲인거죠. 도심 한가운데 질러가는 건물의 축선을 배롱나무 숲으로 만들어 놓는 등... 저희가 경사를 잡기 위해서 돌을 하나하나 놓고 했죠. 저희가 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박영석 안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재미 있는 어떤 이야깃거리가 있어도 그것을 작가가 이야기로 잘 풀어내지 못하면 시나리오가 되지 못하고, 또 시나리오가 좋은 감독을 만나지 못하면 멋진 영화로 풀어내지 못하고, 또 그 감독도 의기투합할 수 있는 촬영 감독이나 스태프, 배우를 만나지 못하면 멋진 작품이 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좋은 설계자가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심의 숲을 구현하려고 했어도 안 기수 소장님을 못 만났으면 그게 현실로 구현이 되기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웃음).

안기수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웃음). 그 말씀을 하니까 제가 얘기가 생각나는데 서서울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딱 그거였어요. 발주처, 설계자, 감독처 그리고 시공사 이 모든 기관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무조건 작품 하나 만들어 보자는 마음 하나로만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이 너무 잘 나왔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시공하는 사람들하고 설계하는 사람들 서로 욕 많이 하죠. 이를테면 시공하는 분들은 현장에서 ‘이게 돼? 이게 맞는 거야? 이거 레벨 하나도 안 맞네’ 이렇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설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고생해서 설계했는데 시공자가 마음대로 다 해버려, 돈 안 된다고 설계 변경하고 아이템 바꿔버리고 한다고 욕하시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서서울호수공원 작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다 바뀌었어요. 시공하는 사람들이라면 설계자의 의도를 무조건 제대로 구현해야 된다고요. 계속 회의하고 같이 풀어내고 고민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인식이 확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는 디자인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디테일을 조금 바꾸는 거는 상의를 해서 바꾸고, 기본적인 디자인은 무조건 그냥 가는 걸로. 그때부터 저는 그렇게 인식이 확 바뀌었어요.

박영석 조금 바보 같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설계안이 아주 멋있게 잘 나왔어요. 그런데 현장 상황과는 안 맞아요. 그래서 설계를 변경할지 아니면 현장에서 재료라든지 조금만 변용시켜서 어떻게든 우겨 넣으시는지, 아니면 현장에 맞는 새로운 설계안을 새로 쳐서 진행하시는지요?

안기수 기본적으로 무조건 설계자의 디자인 관철하는 것, 그것을 전제로 현장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제안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항상 상의를 해요. 여기에 이렇게 하려면 이게 부가적으로 필요하다, 웅벽이 서야 된다, 흙막이가 돼야 된다, 아니면 성토를 얼마나 해야 되고, 이 성토를 했을 때의 쓸림을 어떤 식으

로 막아야 될 것 같다는 등,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하면서 방법도 몇 가지를 제시해요. 그러면 거기서 고르거나 디자이너가 더 나은 방법을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상의하면서 제가 배웠던 것도 정말 많았어요.

박영석 안 소장님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 자꾸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요. 제가 들은 바를 다시 정리해 보면, 예컨대 가수 중에는 작곡가가 준 악보를 최대한 정음에 맞춰서 부르는 가수가 있고, 또 자기가 해석을 해서 음을 바꾼다든지 애드립을 넣는다든지 하면서 자기만의 해석을 가미하는 가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소장님은 설계자의 도면 또는 작곡가의 악보를 최대한 그대로 정음으로 부르는 전자에 가까우신 거네요?

안기수 저는 웬만하면 정음으로 부르고, 하다못해 정음으로 부르다가 조금 바뀌서 불러보기도 하고, 그거를 작곡가에게 들려줘서 어떻게 하나 물어보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좋은 노래가 탄생을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음정이 탄생 할 수도 있고요. 요새는 설계하는 친구들이 절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안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례를 워낙에 쉽게 찾아볼 수 있다보니까 오히려 세상에 유일무이한 자기만의 디자인을 관철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계속 발전할 수 있고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박영석 좋습니다. 이제 주변 동료분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인상 깊은 동료나 협력 업체가 있으신가요?

안기수 제가 독립을 한 뒤 보면서 나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브로들. 팀동산바치 최영준 소장, 김지환 소장. 그리고 조경을 너무 사랑하는 건축가 SOA 이치훈 소장. 그리고 아무것도 모

르는 나를 이끌어주신 조경상회 엘 이대영 소장님. 조경설계사 무소 온의 이상기 소장님, 조성희 대표님.

랩디에이치 최영준 소장이 그때 미국에 있을 때였어요. 2015년도인가 그랬는데 젊은 건축가 프로젝트에 SOA 이치훈, 강예린, 이재원 소장 셋이서 당선돼가지고 지붕감각이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부 조경을 최영준 소장이 미국에서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로컬 업체를 찾던 중에 라디오 김지환 소장이 저를 소개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였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최영준 소장이랑 카톡 주고받고 보이스톡으로 통화하고 하면서 지붕 감각이 탄생했어요. 그때 김지환 소장, 최영준 소장이랑 셋이 만나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도 잘 맞고 조경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잘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팀 동산바치’라고 이름 붙이면서 으쌔으쌔 하고 그랬죠.

박영석 팀 동산바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앞서 살짝 설명해 주신 팀 동산바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려요.

안기수 서서울호수공원 공사할 때, 당시 씨토포스 직원이었던 김지환 소장이 일 그만둔 선임 대신에 현장으로 왔어요. 그때 제가 현장의 공사 과장이니까 김지환 소장이 현장에 오면 구경을 시켜줬어요. 니가 도면을 쳤던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고, 도면이랑 상세도 친 게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라고 현장 다니면서 설명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게 마음에 많이 남았었나 보더라고... 그때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씨토포스에서 김지환 소장을 보내줘서 현장 사무실에서 같이 일도 하고 저랑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교류를 했죠. 몇 년 후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본격적으로 조경상회 이대영 소장님과 김지환 소장 등과 계속 만나왔죠. 그게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팀 동산바치 이름으로 같이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봉사활동도 하고 싶고... 셋이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회가 잘 없네요.

박영석 일종의 레이블인 거네요. 각자 활동하시다가 상황이 맞으면 모이시고.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면 조경상회 이대영 소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무척 멋진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이끌어주셨다”라고 말씀해주셨거든요. 어떤 점이 안기수 소장님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을까요.

안기수 조경 시공 쪽으로는 제가 약간 투박했었는데, 정원 스케일 시공의 섬세함에 대해서 일깨워주시기도 했고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많이 다니게끔 해주시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힘들었을 때 밥도 많이 사주시고 술도 많이 사주시고 그랬죠. 그리고 이상기 소장님하고 조성희 대표님도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힘들 때 불러다가 밥 사 먹이고 술 사 먹이고... 지금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마운 분들이지요.

박영석 그게 제일 크죠. 힘들 때 술 사주고 밥 사준 사람 못 잊죠(웃음). 말씀 중에 나온 조조답사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어서 종종 보는데요. 어떻게 활동하시는지요.

안기수 조조답사는 김지환 소장이 운영하는 계정 중 하나예요. 저도 회사 그만두고 김지환 소장도 그만뒀을 때 ‘우리 많이 보러 다니자’ 하고 뭉쳤죠. 회사에서는 일만 많이 하느라 어디 가서 보는 게 힘들었거든요.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어디어디가 유명한 데 해서 가보니 완전 다른 색인 거예요. 외국에서 유학하시다 들어오셔서 했던 프로젝트들, 그분들이 썼던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하니까 완전히 다른 색인 거죠.

저는 디자인하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심오하게 생각하고 그럴

줄 몰랐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분들이 했던 결과물들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약간 아기자기한 거, 자그마한 정원 그런 거 하고 싶어서 잘 만들어진 카페나 청담동 갤러리 주변을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중에 엔트러사이트 서교점이 대단했죠.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인데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실거예요. 마당에 있던 기존 수목을 정리하고 가이즈까향나무 같은 상록수만 주로 남겨놓고 하부엔 깻돌을 짝 깔아놔요. 그 공간이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아니 무슨 개비온석을 이렇게 썼지? 머리를 한 대 땡 맞았죠. 저는 우리가 하는 업이 버릴 자재가 없는 업이란 생각을 해요, 토공 정리하다 나온 잔돌조차도 멀칭으로 쓸 수 있죠. 물로 닦아보면 같은 돌이 단 한 개도 없거든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항상 도면만 보다 보니 틀에 박힌 시설물. 기성품만 봐왔던 제가 전혀 접하지 못했던 아이템들, 생각지도 못한 조경 공사를 보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응용해서 만들 수 있구나,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그런 걸 보려고 김지환 소장이 저를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저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둘이서 김밥에 라면도 먹고(웃음).

박영석 엄청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이다.

안기수 나는 공간시공 에이원의 큰머슴이다. 누가 봐도 제가 대표처럼 안 보이거든요.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실제로 아직까지 돌 놓고 할 때는 제가 주로 해요. 저는 그게 좋아요. 대표, 소장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그냥 머슴처럼 일하는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런데 머슴 중에서는 제일 큰 머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박영석 다음으로 조경은 ○○○이다.

안기수 조경은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어렵다. 뭔가를 하다 보면 안 했던 것들 못 했던 것들이 눈에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경이라는 업이 진짜 무궁무진하잖아요. 이걸 해본 다음에 또 다른 걸 해보려고 하니까 생소해, 안 해본 거야. 뭔가 했던 걸 가지고 응용을 해야 돼. 그럼 더 공부를 하게 되고 하다 보면 또 어렵고, 또 해내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알면 알수록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면 팔수록 조경이라는 학문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주만큼 큰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사소하게 식물 하나 심는 것도 이렇게 심냐, 저렇게 심냐 방법이 많고 돌 놓는 것도 그래요. 제가 어릴 때 현장 뛰면서 했던 디테일은 지금 친구들과 하는 도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디자인하시는 분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어느 특정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해. 그러다보니 저도 계속 성장하는 느낌이 들고,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하면 할수록 어렵고, 알면 알수록 또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석 조경 시공은 ○○○이다.

안기수 조경 시공은 열정과 땀, 생각의 집합체이다. 한 마디 더 붙이자면 눈물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공사 끝나면 준공 행사를 하거든요. 특히 힘들게 끝낸 현장에서 오픈 행사하면 그렇게 민원 넣던 사람들이 와서 좋아하고, 애들 좋아하고. 또 인사하고 지내던 동네 어르신이 고생했다고 할 때... 울컥하는 기분이 들고 실제로 눈물도 흘린 적도 있었어요.

박영석 아마 그런 지점들이 김지환 소장님하고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궁금한 게 있습니다. 조경 시공을 한번

해보고 싶다 또는 정원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소위 조경 시공 워너비 키즈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안기수 저는 그냥 많이 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시켜서 하는 거는 시켜서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일을 접하기 전에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요새 유명한 곳 찾아보기도 좋고 다니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장 나한테 필요 없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못 해 가지고 아쉬운 것도 있어요. 카페 같은 데서 커피 마시고 사진 찍다 보면 이런이런 디테일도 눈에 들어오고... 많이 다니고 많이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간 있을 때 많이 보고 시간 없으면 못 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간을 내서라도 가서 보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야. 일을 아무리 잘해도 성격이 안 맞으면 그 사람은 절대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만 잘한다고 성장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 시공업 같은 경우는 나 혼자 복치고 장구 치고 다 못하거든. 내가 용접하고 내가 돌 놓고 내가 나무 심고... 절대 못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상생할 수 있으려면 일단 내 자신의 마음이 끝나야 되고 바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성,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진짜 싸움닭이었거든요. 서서울호수공원 공사할 때도 레미콘 왔다갔다 하니까 먼지가 확 나잖아, 사람 붙여가지고 물 좀 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원은 전부 나한테만 들어오니깐. 세 번째 말하다 안 들어서 제가 오토바이로 레미콘 막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렇게 싸우면서까지 했었거든요(웃음). 그리고 저는 조경하시는 분들이 타공종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덜한데, 옛날에는 ‘조경하는 애들 이런 거 몰라, 조경이 이래서 안돼’ 이런 얘기 듣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조경이 나무만 심으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가 하는 일들도 잘 알아야 된다고 봐요. 저도 농담으로 “집 짓는 거 빼고 나머지 다 할 줄 알아. 너네들 웬만한 토목 하는 거 다 할 줄 알아. 설비 다 마친가지야” 그래요. 지금 우리 하는 일 자체가 워낙에 복합적인 일이다보니까 어느 정도 평준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큰 다리 짓고 큰 빌딩 만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 저는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다른 분야까지 다 공부를 해야지만 내 자신이 나중에 좋은 위치에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공정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더 배우려고 해야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뭔가 더 도움이 되고 타공정 친구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박영석 요약하자면 여러 다양한 공간들을 보면서 안목을 키우고, 다양한 협력업체와 전문가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인성을 키우고,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전문성을 키워라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안기수 맞습니다.

박영석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수 네, 감사합니다.



카페 보리 ©안기수



KT 디지코가든 ©안기수



©안기수



©안기수



©안기수